■민족문화연구 제85호(2019.11.30),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13-45.
http://doi.org/10.17948/kcs.2019..85.13

【특집1: 한국 전문 사전 편찬의 현재와 미래】

교육학 분야 사전 편찬에 관한 고찰
—1970년대 이후 주요 사전 편찬을 중심으로—

신창호(申昌鎬)*

목 차

1. 머리말
2. 교육학 발전과 사전 편찬의 필요성
3. 교육학 분야 주요 사전의 편찬 현황과 개요
4.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교육학 분야의 사전 편찬 현황과 내용을 개략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1945년 해방 이전에 서구교육학이 유입되면서 발달한 한국교육학은 이후 성장을 거듭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육학 전문영역의 사전을 편찬하기에 이른다. 사전 편찬에는 당대의 교육학 전공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집필을 분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교육학의 일반 내용을 포괄적으로 수록한 『교육학대사전』을 비롯하여 전문영역을 다룬 『특수교육 용어사전』에 이르기까지 분야별 특징을 갖추었다. 하지만 전문영역별 분과 교육학 사전일지라도 교육의 특성상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전문영역에 특화된 내용도 존재한다. 사전의 규모는 400여 쪽에서 1,700여 쪽 정도이고, 표제어는 750여 개에

*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서 10,000여 항목에 이를 정도이며, 전문영역별 사전의 경우, 표제어가 1,000여 항목으로 정돈되어 있다. 향후 증보판을 발간할 경우, 그 동안 축적된 학문성과를 반영하고, 세부 전공학자가 참여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용어 및 개념의 통일과 표준화, 한국교육학의 특수성과 국제적 보편성을 고려해야 한다. 통일을 염두에 둘 경우, 북한의 교육학사전을 비교・검토하여 남북 교육학 사전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도 있다.

주제어: 사전, 교육, 교육학, 교육학대사전, 교육학 용어사전, 교육심리학 용어사전, 교육공학 용어사전, 유아교육사전,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교육평가 용어사전.

1. 머리말

어떤 영역이건, 학문은 그 분야에서 다루는 개념이나 용어의 정돈을 통해 발전을 거듭한다. 개념이나 용어는 시대나 사회상황의 변천에 따라 분석과 검토를 통해 새롭게 풀이되며 승화의 과정을 거친다. 그 핵심 역할을 하는 작업이 다름 아닌 '사전 편찬'이다. 사전 편찬도 목적에 따라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닌다. 한글로는 '사전'으로 표기되지만, 의미상 '사전(辭典)'으로 명기하는 때도 있고 사전(事典)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사전(辭典)은 주요한 용어나 개념을 의미하는 단어를 모으고 그 형태나 발음, 기능, 어원의 구조 및 관용어법 등 해당 단어에 관한 내용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돈하여 뜻을 풀이한 책이다. '국어사전(國語辭典)'이나 '고어사전(古語辭典)', '한영사전(韓英辭典)' 등과 같은 언어학 사전을 편찬할 때 많이 사용한다. 사전(事典)은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사물이나 발생한 사안 등을 모으고 그 하나하나를 길게 풀이하여 설명을 붙인 책이다. '백과사전(百科事典)'이나 '인명사전(人名事典)' 등을 편찬할 때 자주 사용한다.[1] 이러한 '사전'은 어떤 학문의 발전과정에서 축적해온 기존의 학문을 정돈하며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새로운 출발의 발판으로 작용한다.

---

1) 사전(辭典, 事典)에 관한 설명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한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오픈 마인드의 『디지털 한자사전 e-한자』, 단국대 동양학연구원의 『한국한자어사전』 등을 참고하여 정돈함.

본고는 1970년대 이후 '교육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주요 사전의 편찬 현황과 내용, 그리고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교육학은 영역에 따라 다양한 분과 학문으로 구성된다. 먼저, 기초 학문이나 거시적 차원의 교육목적 또는 교육과정의 영역에서는 '교육철학'이나 '교육사학', '교육과정', '교육평가' 분야가 있다. 미시적 차원의 교육방법 영역에서는 '교육심리학', '교육공학' 분야가 있고, 응용 학문의 영역에는 '교육사회학', '교육행정학'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특수교육', '유아교육', '성인교육', '평생교육', '기업교육', '교과교육' 등 대상과 내용, 상황에 따라 여러 영역이 존재한다.

교육학 분야의 사전 편찬도 이런 분과 학문의 발전과 궤적을 같이 하는 가운데 진척되어 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교육학 발전의 추세를 간략하게 점검하고, 기존에 편찬된 주요 사전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검토하여 소개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는 '2000년 이후 지식 정보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연구자뿐만 아니라 고급 이용자를 위한 사전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2]는 차원에서 종합적 정돈과 정보 제시가 절실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2. 교육학 발전과 사전 편찬의 필요성

교육은 흔히 인간 삶의 원형적 현상으로 인식된다. 이 때문에 교육의 역사는 광의의 개념에서 본다면,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다. 교육학의 역사 또한 교육에 터하여 학문으로 정돈해 온 만큼 깊다.[3] 그러나 서구 근대사회에 들어와 처음으로 교육학의 구조가 수립된다. 즉 교육학은 코메니우스(Johann Amos Comenius, 1592-1670)의 『대교수학』과 헤르바르트(Johann Friedrich Herbart, 1776-1841)의 『일반교육학』을 근대 교육학의 시발점으로 삼았다. 코메니우스는 실학주의(實學主義)를 바탕으로 교육의 원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하였다. 교육의 본질과 목적, 교수이론, 도덕교육, 종교교육, 학교

2) 도원영・신상현・최경봉, 「사전 편찬 정보 통합 DB구축 방안 연구」, 『민족문화연구』 제75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7, 18면.

3) 이하 교육학의 발전에 관한 내용은 조무남, 『교육학론』, 학지사, 2004, 11-23면을 참고하여 정돈함.

제도 등 폭넓은 내용을 다루었다. 이후 헤르바르트는 교육학을 일종의 과학(科學)으로 이해하면서 교육학의 학문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헤르바르트는 교육이 단순한 인간 삶의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지기보다 과학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교육의 목적을 '윤리학(倫理學)'에 두고 교육의 방법을 '심리학(心理學)'에서 찾았다.

이후의 서구교육학은 도덕과 윤리에 무게중심을 둔 '규범 과학적 방법'은 물론, 실천방법을 고심하는 실증과학(實證科學)으로서 교육학의 가능성도 모색하였다. 그리고 심리학 연구의 방법적 전환을 계기로, 실험과 관찰, 측정과 평가를 통해 실험심리학의 중요 방법들을 도입하면서 교육학은 혁신적으로 발달하기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지필검사, 개인차 연구, 지능검사' 등과 같은 측정심리학의 연구 결과는 교육학 분야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이 지점에서 교육학은 교육적 가치를 전제로 하는 '규범 과학적 특성'과 경험적이고 객관적 사실을 전제로 하는 '기술 과학적 특성'이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견해와 방법론을 공유한다. 이때 규범 과학적 특성은 철학적 방법론이 뒷받침되었고, 기술 과학적 특성은 과학적 방법론을 수반하였다. 과학적 방법론의 경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행동주의(行動主義)와 실증주의(實證主義)로 대변되었고, 교육학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전위대 역할을 하였다.

한국의 교육이나 교육학의 발전과정은 다양한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 서구교육학이 유입되기 이전에 조선 시대까지는 유학(儒學)을 중심으로 교육이 구축되어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중반에 걸쳐, 이른바, 개화기 또는 애국 계몽기를 지나 일제 강점기에 이르는 기간에는 서구 교육이 도입되었다. 특히, 대한제국(大韓帝國) 시기인 1907년 전후에 발간된 교육학 이론서에는 교육의 의의나 필요성, 한계점 등을 논의한 교육학 총론을 비롯하여, 교육의 목적을 개인주의와 국가주의 측면에서 다룬 교육학 이론과 교수·교과·훈육·양호·신체단련·교사론·학교론 등을 다룬 교육방법에 관한 학설이 소개되었다.[4)]

그러나 본격적으로 서구의 교육이론이 도입되어 실천으로 연결되는 것은

1945년 해방 이후이다. 그것은 미국의 교육사절단이 '새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들여온 미국의 진보주의(進步主義) 교육 이론이었다. 진보주의는 미국철학의 집대성자로 평가받는 듀이(John Dewey, 1859-1952)의 프래그머티즘(Pragmatism)에 기초하여 교육운동으로 발전한 교육사조이다. 이는 교육을 '삶 자체(Life itself)'로 인식하고 '경험의 재구성'을 교육으로 이해하며 생활교육(生活教育)을 중시한다. 인간의 성장이나 관심, 흥미를 주요 개념으로 교육의 틀을 구성한다.[5] 이와 함께 당시 미국에서 발달한 다양한 측정・평가 이론, 과학주의를 표방한 행동주의 심리학이 교육에 도입되면서 기술 과학적 방법론이 한국 교육학 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후 1960년대를 거치면서 진보주의를 비롯한 본질주의(本質主義), 항존주의(恒存主義)[영원주의(永遠主義)], 문화재건주의(文化再建主義) 등 20세기 미국의 4대 교육사조가 수시로 유입되면서 한국교육의 진보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학의 발전은 197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주요 대학에 교육학과를 비롯한 교육학 관련 전공학과를 설치하기에 이르렀고, 교육학의 체계적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제 교육학은 교육의 원리나 본질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교육철학 영역은 물론이고 교육방법을 주요하게 다루는 교육심리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철학이나 방법론은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공학 등 세분화를 거쳐 전공영역을 심화해 나갔고, 사회 변화에 따라 교육학의 수요가 늘어나고 중요한 분야에 대한 강조가 다양성을 띠면서, 유아교육, 특수교육, 평생교육, 성인교육, 산업교육, 다문화교육 등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런 교육학의 발전은 교육학 자체의 학문적 분류와 이론이나 개념의 통일, 내용의 정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낳았다. 그것이 교육학 관련 용어나 개념에 관한 사전 편찬을 추동하는 힘이 되었고, 교육학계 스스로가 분과 학문별로 사전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

4) 尹泰榮, 『師範教育學』, 京城: 普成舘, 1907(光武十一年); 崔光玉, 『教育學』, 京城: 普成社, 1907(隆熙元年); 兪鉉兼, 『簡明教育學』, 皇城: 右文舘, 1908(隆熙二年) 참고.

5) 신창호, 『존 듀이 교육학의 원류를 찾아서—나의 교육 신조 독해』, 우물이있는집, 2018; 『민주적 삶을 위한 교육철학—존 듀이의 일상 교육 구상』, 우물이있는집, 2016 참고.

3. 교육학 분야 주요 사전의 편찬 현황과 개요

규모를 갖춘 교육학 분야의 사전 편찬은 1970년대 들어 교육학의 발전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이전에는 한국의 국가발전 상황으로 볼 때, 사전을 발간할 수 있을 사회적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 기껏해야 일제 강점기에 발간된 일본식 사전을 번역하거나 모방한 수준, 또는 영미 계통의 사전을 번역하여 참고하는 정도로 개별 학자의 차원에서 유통된 것으로 판단된다. 초기에 편찬한 사전은 '사전(事典)'과 '사전(辭典)'의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내용상 혼재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분과 학문이 성숙하고 전문성을 확보할수록 개념이나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돈하였고, 교육학의 특성을 갖춘 사전으로서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여기서는 교육학 분야에서 편찬된 주요 사전[6]에 대해 해제(解題)의 형식을 빌려, 해당 사전에 관한 기본 정의, 편찬 경위, 구성 및 내용, 자료적 가치 등을 간략하게 검토한다.

1) 『(활용)교육대사전』[7]

『(활용)교육대사전』은 일선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 편찬한 실용성을 갖춘 교육사전이다. 이 때문에 교육의 실제 항목을 다양하게 나열한 '사전(事典)'의 성격을 띤다. 교육에 관한 여러 문제와 그 본질을 교육학뿐만 아니라 그 인접학문인 심리학(心理學)을 비롯하여 의학(醫學)의 측면에서도 해명하였다. 1970년대 당시 새로운 시대의 교육 지침에 맞춘 '종합적 교육사전'의 성격을 지닌 공구서(工具書)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연구・집필하여 편집・발간된 책이다. 표제어로는 750여 항목의 규모를 제시하였고, 현장

6) 기존에 편찬된 사전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9종류에 대해 분석・검토한다. 먼저, 교육학 영역을 종합적・포괄적으로 다룬 사전으로 『(활용)교육대사전』, 『(최신)교육학대사전』, 『교육학 용어사전』, 『(알기 쉬운)교육학 용어사전』 등의 4종류를 제시하고, 다음으로 교육학의 분과 학문으로 각 분야의 전문영역에 해당하는 사전으로 『교육심리학 용어사전』, 『교육공학 용어사전』, 『유아교육사전』,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교육평가 용어사전』 등 5종류를 제시한다. 이외에도 교육학 영역이나 관련 분야의 사전은 다양하게 발간되어 있으나, 다음 기회의 연구로 미루고 본고에서는 생략함.

7) 교육대사전 편찬위원회, 『(활용)교육대사전』, 신진출판사, 1972. 이하 교육학 분야의 사전은 해당 사전의 머리말 및 해제, 〈참고문헌〉에 제시한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다시 정돈한 것임.

밀착형 활용사전으로서 기능을 한다.

사전을 편찬하게 된 경위를 분석해 보면, 『(활용)교육대사전』은 기본적으로 당시까지 제대로 정돈되지 않은 교육 관련 사항을 나열식으로 정리하려는 의도를 띠고 있다. 특히,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은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변동하는 급격한 사회변화 상황을 맞았다. 그런 만큼 교육도 변혁을 고심하고 있었다. 새로운 교육지침을 비롯하여 지도요령도 다르게 이해해야 하고 시대에 맞는 교육양식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따라서 일선 학교현장의 교사들이 실제로 활용할 실용적 교육사전이 간절히 요청되었다. 이에 순수하게 한국적 교육이나 교육학은 아니지만, 1970년대 이전의 영미(英美)에서 발간된 사전을 비롯하여 독일, 일본의 교육학 관련 서적을 참고로 핵심용어를 발췌하여 편집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육의 표면적 숭엄성(崇嚴性)이나 절대성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융통성(融通性)이나 적변성(適變性)이 요구되었다. 즉 새로운 교육문제의 등장 및 그에 따른 교육의 발전과정에 발맞추어 그 원인 규명과 처방, 지도요령의 과학적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다. 특히, 고차원적 교육 안목을 다지기 위한 실용적이고 실천적이며 현장 밀착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해설서나 입문서가 요구되었다. 이 사전은 그런 문제의식에서 교육의 필수 항목들을 나열하고 정돈하여 편찬한 최초의 교육 관련 대사전이다.

사전의 개략적 내용을 보면, 교육에서 이론적으로 논의되고 실제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다양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사전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앞부분은 '겉표지/속표지/머리말/일러두기/항목별일람표' 등으로 되어 있고, 본문은 750여 항목의 교육 관련 내용을 한글의 자모 순서에 따라 'ㄱ-ㅎ' 순으로 분류하여 배열하고 있으며, 뒷부분은 '부록'을 간략하게 첨부한 형태로, 전체 1책으로 되어 있다. 본문에 수록한 사항은 '지능과 지능검사', '인격・성격 및 그 검사', '적응・부적응', '가이던스', '특수교육', '교사와 학생의 관계', '사회교육・가정교육・아동교육', '교육학용어 기타', '시청각교육과 아동문화', '학습', '학습지도', '작업', '교과의 심리', '교육평가', '교육심리학', '발달심리', '신체적 발달', '지적발달', '정서의 발

달', '성적 발달', '사회적 발달', '사회심리', '통계법' 등 현장에서 많이 다루는 23영역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교육 '사전(事典)'의 특성상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철저한 분석보다는 여러 사항을 모아서 나열하는 특색을 보인다. 첫 번째 항목인 '가이던스(Guidance)'의 경우, 가이던스의 '의의', '가이던스 운동의 역사', '가이던스의 영역', '가이던스의 계획', '가이던스의 담당직원' 등 가이던스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교육 실천 영역에서 실용적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정돈하여 제시하였다. '부록'에는 '교육심리학 관계 인명록'을 비롯하여 '로마자 색인', '우리나라 문교부 기구표' 및 '학제', '초·중·고교생 체질 현황'이 실려 있다.

이 사전은 사전사적으로나 학문적 측면에서 상당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먼저, 사전사적 가치 측면에서, 『(활용)교육대사전』은 종합적 교육사전으로서 선구적 업적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한국교육에서 서구교육이 수입되기 시작한 시기가 19세기 후반이고, 20세기 일제 강점기를 거쳐 대한민국 수립과 더불어 교육이 본격적으로 정착하는 시기가 1960년대이므로, 1970년대 초반에 편찬한 이 사전은 한국의 교육계에 초석을 다져준 저작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변동에 맞추어 새로운 시대 추이에 따라 교육의 방법을 고민하고, 일선 현장의 학교 교육자들을 위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전의 편찬은 당시 새로운 교육지침에 맞춘 획기적 사건이었다. 무엇보다도 이전에는 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이런 부류의 사전이 없었고, 이 사전에서 다룬 항목은 교육을 심리학과 의학 등 인접학문과 연관시켜 이해하려는 차원이므로, 교육 실천과 연구에서 실제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다음으로 학문적 가치 측면에서, 이 사전은 한국교육이 서서히 정착되면서 농업사회에서 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될 시기의 사회변화와 교육변혁을 현실적으로 일치시키려는 고민의 산물이다. 특히, 교육이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산업교육·정신위생 등 여러 학문영역과의 종합적 성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교육심리학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것이 이전처럼 단독적인 하나의 과학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심리학・정신의학・생리학・사회학・교육학 등 인접과학과의 밀접한 관련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고차원적 교육 안목을 다지는 데는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함께 공유하는 작업도 중요한데,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는 교육에 관한 명쾌한 해설서나 입문서가 없었다. 이런 점에서 이 사전은 '종합적 교육사전'으로서 교육지침을 제시하는 선구적인 종합 교육사전으로서 위상을 지닌다. 각 항목마다 기존의 저명한 외국의 교육이론과 그 실제를 소개하였고, 교육학자와 인접 과학의 권위자가 공통으로 연구하여 집필하였다. 비교적 간결한 서술과 객관적 표현으로 중요한 학문 체계나 진단 및 교육 지도 방법과 요령, 대책에 이르기까지 신중하게 고민하며 당시에 정돈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수합하려는 학문적 완벽을 기하였다. 그러나 '항목별일람'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심리학 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발달' 이론의 소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여타의 학문영역에 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적어 아쉬움이 있지만, 이런 내용의 수록은 당시의 학문발달 수준에서 볼 때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산업교육이나 사회교육, 정신의학, 사회학 등 관련 학문의 중요성과 시대 추세를 충실하게 고려하였다는 점에서는 미래 지향적 학문 방향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2) 『(최신)교육학대사전』[8]

『(최신)교육학대사전』은 1980년대까지 한국에서 논의되었던 교육이론이나 교육 관련 연구결과를 가장 충실히 대표하는 교육학 관련 용어나 개념 10,000여 항목을 수록한 교육학 관련 대사전(大辭典)이다. 수록한 항목은 단순한 자의(字意)나 어구(語句)의 풀이에 그치지 않고, 교육학적 시각에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설하고 소개하여 정돈하면서 최신 교육학 이론을 학문적으로 최대한 연구하여 반영하였다.

사전의 편찬 경위는 시대변화와 적극적으로 연관된다. 1980년대가 되면서

8) 남억우 외, 『최신 교육학대사전』, 교육과학사, 1990.

한국교육학도 장년기에 접어들었다. 서구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천되어온 지 40여 년이 지난 이력이 쌓인 만큼, 이제는 한국의 교육을 찾고 정비함으로써 한국교육학 연구를 위한 지반을 다져야 할 때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특히, 당시의 시대 추세로 볼 때, 10여 년 후에 다가올 21세기의 교육을 대비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의 제반 측면에 걸쳐 개혁 의지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시대의 전환점에서 교육학 연구도 크게 발전하고 있고, 역량 있는 교육학자들에 의해 교육학 전문서적이 충실하게 발간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학계 및 교육계에 내놓을 만한 충실한 '교육학사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팽배하여 교육학 전문사전의 출현을 간절히 기다리는 형국이었다. 그 이전에는 1965년에 1,146쪽 규모로 발간된 『교육학사전』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1972년에 1,342쪽 규모로 증보하여 발간한 『교육학대사전(敎育學大辭典)』이 있었다. 이는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한 교육학 전문사전으로, 어느 한 개인의 편견이나 주장을 담지 않고 수많은 회의를 거쳐 편집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편찬한 역작이었다. 당시의 한국 교육학계 및 교육 관련 분야에서 활약하던 중진학자들이 사전 편찬에 적극 참여하였고, 국제적 수준에 상응하는 원고를 제공하여 교육이론의 발전이나 교육연구의 동향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의 산업화를 넘어 1980년대의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따라 교육이론이나 연구 결과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런 시대 추세를 반영하여 1965년 처음 편찬하고 1972년에 수정 보완을 거쳐 내려오던 『교육학대사전』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완전히 개정하는 수준에서 새로운 차원의 교육학 사전으로 재편집하여 편찬하였다.

이 사전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앞부분은 '겉표지/속표지/서문/범례' 등으로 되어 있고, 본문은 10,000여 항목의 교육학 관련 용어와 개념을 'ㄱ-ㅎ' 순으로 분류하고 배열하였으며, 뒷부분은 '색인(국문색인/동양인명색인/구문(歐文)색인/서양인명색인)'과 '판권'으로 구성하여, 전체 1책으로 되어 있다. 본문에 수록한 교육학 개념이나 용어는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육이론이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

용으로 꾸민다.'라는 기본 원칙 아래 정돈하였다. 이에 따라 1965년 판 『교육학사전』과 1972년 판 『교육학대사전』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항목의 확정을 위해 광범위한 문헌 분석과 자료 수집을 통해 집중 토의를 거쳤다. 새로운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최신 교육학 원전과 국내외 전문 서적을 기초 자료로 하여, 그 가운데 30,028항목을 추출하였다. 여기에서 기존 항목과 중복되는 부분은 폐기하고 나머지 항목은 취사선택하는 과정을 거쳐 1,212항목을 증보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최종 10,000여 항목에 이르는 1,700여 쪽 규모의 『(최신)교육학대사전』을 발간하였다. 이는 1972년 판보다 350여 쪽의 내용 증가에서 보듯이, 당시로서는 가장 최근에 연구・개발되고 있던 교육 관련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하여 편찬한 것이다. 집필의 기본태도인 '수록한 항목의 자의나 어구의 풀이에 그치지 않고 교육학적 차원에서 그 내용을 해설하되 다 항목 수록주의를 채택한다.'라는 데 근거하였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수록할 수 있었다. '부록'에는 '색인'을 중심으로 실었는데, '색인'은 '인명색인'과 '일반색인'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동양인명'과 '서양인명', 그리고 '국문색인'과 '구문(歐文)색인'으로 나누어 실었다.

사전사적 가치 측면에서, 『(최신)교육학대사전』은 한국교육학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40여 년이라는 교육학의 학문적 누적으로 인해 장년에 들어선 교육학을 성찰하고, 21세기를 대비하는 교육의 새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사전을 전면 개편하여 정돈한 '종합적 교육학사전'의 모범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1965년의 『교육학사전』이나 1972년의 『교육학대사전』은 초기 단계에서 한국에 유입된 교육과 교육학을 정돈하고 교육학 동향을 반영하여 소개하는 데는 나름대로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교육이론이나 연구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교육학 전반의 연구에도 한계를 느끼게 되면서, 교육학계의 변화와 발전 도정에서 보다 폭넓고 수준 높은 사전을 요구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에 이 사전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종합적 교육학 전문사전으로 편찬되었고, 그만큼 한국 교육학 사전의 기초를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요컨대, 현대적 체계로 편찬한 대표적인 교육학 전문사전이라 할 수 있다.

학문적 가치 측면에서, 이 사전은 서구 근대교육이 도입된 이후, 교육학 분야의 이론과 연구 성과를 가장 많은 분량으로 집대성하여 편찬한 것으로 한국 '교육학사전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양적 측면에서도 당시까지 간행된 교육학사전 가운데 수록 내용이 가장 많고, 질적 측면에서도 당시의 최신이론 및 연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그때까지 이루어진 교육 및 교육학 연구를 종합하여 수정 보완하였고, 21세기를 대비하는 교육의 새 전기를 마련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 교육학 사전을 학술적으로 고려하였다. 즉 교육학이 새로운 전환점을 추구하는 시기인 만큼, 이 사전은 전공영역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 교육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 특히, 1965년과 1972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교육학 사전을 시대 추세에 맞추어 전면 개정함으로써 교육학이 학문적으로 진보한 내용과 질적 승화를 꾀할 수 있는 발전상을 상당한 수준에서 담아냈다. 사전의 앞부분에 나오는 '가계연구'나 '가계조사법'이라는 항목을 보아도, 단순한 개념 설명이나 용어 해설을 넘어서 있다. 도덕적 불량성에 관한 가계연구의 사례로 1874년 미국에서 동일가족이 동시에 형무소에 들어갔던 쥬크스 가계나 미국의 심리학자 고다드의 1912년 정신박약의 연구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고, 가계연구법의 경우에도 영국의 갈톤이나 이탈리아의 롬부로소 등의 통계적 비교 분석 방법 등을 간략하게 안내하여 교육과 교육학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 이런 점에서 이 사전은 1980년대까지 이루어진 한국의 교육학 성과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편찬한, 당시로서는 최신에 해당하는 『교육학대사전(敎育學大辭典)』이라 할 수 있다.

3) 『교육학 용어사전』[9]

『교육학 용어사전』은 한국교육학의 균형적 발전과 창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학 용어를 표준화하고 그 의미와 용법을 명료화하는 작업을 염두에 둔 용어사전이다. 그만큼 교육학에 입문하는 초학자들과 교육현장의 교원들이 교육이론을 공부하는 데 개념적

9) 서울대 교육연구소, 『교육학 용어사전』, 도서출판 하우, 1994.

이해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돈하였다. 표제어만 해도 4,600여 단어 규모의 '대사전'이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는 교육학을 종합 정돈한다는 의미에서 당시의 한국교육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을 가능한 총망라하여 수록한 『교육학 용어사전』(초판, 1981)을 발간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교육학에 대한 관심 확장과 새로운 교육이론들이 개발되어 초판에 수록되지 않은 새로운 교육학 용어들이 수없이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교육학을 공부하는 학도는 물론 현장 교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판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대폭 증보하여 '전면개정판'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체 편집위원과 연구원들 사이에 나오기 시작하였다. 특히, 교육학의 학문적 수준이 높아지고 발전을 거듭하면서 교육학 용어의 의미를 표준화하고 그 용법을 명료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무엇보다도 교육학의 지식 체계는 본래 '철학, 역사학, 심리학, 사회학, 행정학' 등 인접학문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거나 복합적 시각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 상당한 부분을 이루고 있으므로 개념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한국의 교육학은 서구 교육학 이론의 도입과 더불어 발달하였으므로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노정된다. 그만큼 초판을 수정 보완하여 『교육학 용어사전』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 사전의 편찬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다.

이 사전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앞부분은 '겉표지/속표지/(전정판)머리말/편집위원・연구원・집필위원 명단/일러두기' 등으로 되어 있고, 본문은 4,600여 용어들을 'ㄱ-ㅎ' 순으로 분류하여 배열하였고, 뒷부분은 '부록'과 '판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1책으로 되어 있다. 전체 내용에 수록된 영역은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교육과정이론', '교육행정학', '교육연구', '특수영역이론(유아교육, 특수교육, 직업교육)' 등 교육학의 분과학문에 자주 쓰이는 용어를 해설하고 동일 개념이나 대비 개념, 참고 항목 등을 알기 쉽게 정돈하였다. 용어의 풀이는 개념을 간략히 정립한 다음, 보충설명 및 사례를 들어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 본문의 표제어 가운데 맨 먼저 나오는 '가계도'의 경우, 가계도 바로 옆에 '家系圖/genogram'이

라는 한자와 영문을 표기하고, 이어서 '가족상담 이론에서 가족체계의 3세대를 구조적으로 도형화해 놓은 것'이라는 용어를 해설하였다. 그리고 '한 가족의 삼 세대에 걸친 관계 체계를 구조적으로 나타낸 도표로서 가족관계 체계에 관한 안내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여 이해를 돕는다. 나아가 '이는 가족체계 이론가들에게서 발달되었는데 (…) 가족 내부의 관계양상을 이해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부연설명을 첨가하여 교육학의 용어를 표준화・명료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내 준다. '부록'에는 교육학과 관계있는 동서양 인물들의 인명을 싣고, 그의 연대・연구영역・저서 등을 간략하게 실었다. 아울러 '표제어' 및 '외국어 찾아보기'를 실어 외국어의 우리말 표기에 대한 표준적 번역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전사적 가치 측면에서, 이 사전은 교육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문용어를 선정하여 그 의미를 표준화하고 그 용법을 명료화하여 교육학의 체계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돈하였다. 이는 기존의 '교육사전'이나 '교육학사전', 또는 '교육학대사전'의 항목 정돈이나 표제어 정돈과는 달리,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교육과정이론, 교육행정학, 교육연구, 특수영역이론' 등 교육학의 전문영역들, 즉 교육 과학적 학문 체계를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전문가가 직접 집필하여 용어의 표준화와 명료화를 꾀한 사전이다. 이 때문에 교육학 사전을 교육학에 필요한 사항이나 용어들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한 집필과 토의를 통한 개념의 통일성을 꾀하려는 작업으로 교육학의 질적 승화에 기여하였다.

학문적 가치 측면에서, 이 사전은 1990년대 이후에 진행된 교육학의 표준화와 명료화를 위한 학문적 연구 성과를 최대한 집대성하여 편찬한 것으로 '한국교육학 용어사전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수록한 교육학 용어들은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교육과정이론, 교육행정학, 교육연구, 특수영역이론' 등을 포괄하는, 교육학 영역 전반에 걸쳐 사용하는 용어들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였다. 또한 교육학의 이론적 탐구에서 자주 언급된다고 판단하는 용어들을 선택하여 조직화하였다. 이외에도 교육학과 인접학문 영역과 연관되는 용어, 외래어 번역 등을 신중하게 정돈하여 표준화를

시도하였고, 학문용어의 의미를 하나의 체제 속에서 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연관시켜 학문적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정돈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알기 쉬운)교육학 용어사전』[10]

『(알기 쉬운)교육학 용어사전』은 교육학의 전 영역을 아우르면서 핵심적 의미를 알기 쉽고 간단명료하게 풀어쓴, 말 그대로 '알기 쉬운' 교육학 용어 및 개념 사전이다. 기존의 '교육학 용어사전'들이 교육이나 교육학과 관련한 사항을 백과사전식으로 정돈하거나 특정한 교육학의 영역만을 다룬 것에 비해, 이 사전은 교육학의 영역을 여섯 부분으로 분류하여 핵심 개념을 스스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시에 대학의 교직과목 편제와 연계하여 새롭게 편집하였는데, 표제어가 2,000여 항목에 이르는 '중사전'이다.

이 사전은 교육학 용어를 올바로 이해하는 작업이 교육학 공부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에서 기획되었다. 그 동안 출간된 '교육학 용어사전'들은 대부분이 교육학의 전 영역을 다루면서도 표제어가 아주 많은 동시에 매우 두꺼운 교육학 백과사전 성격의 저술이거나 『교육심리학 용어사전』이나 『교육평가 용어사전』처럼 교육학의 분과학문 영역만을 다룬 사전이었다. 이러한 사전들은 표제어에 대한 장황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어, 간단명료하고 쉽게 교육학 용어를 이해하거나 전문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교육학의 전 영역을 아우르면서도 각 영역별 핵심 의미를 알기 쉽고 간단명료하게 풀어써서 언제든지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학 용어사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이르렀다. 기존의 일반적인 교육학 용어사전 형태를 벗어나 교육학을 연구하는 교육학도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전,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전을 요청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육학 영역을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사회학 및 평생교육', '교육심리학 및 교육공학',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행정학' 등 여섯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교육학 사전의 용도를 단지 어려운 교육용어나 교육개념을 찾아보기 위한 참고도서 수준이 아니

10)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알기 쉬운 교육학 용어사전』, 도서출판 원미사, 2007.

라, 그것을 넘어 각각의 영역에 나오는 전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개념을 스스로 탐구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이 사전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앞부분은 '겉표지/속표지/머리말/차례' 등으로 되어 있고, 본문은 2,000여 개의 용어를 엄선하고 교육학을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 각 영역별로 'ㄱ-ㅎ' 순으로 분류·배열하였으며, 뒷부분은 '찾아보기'로 구성하였는데, 전체 1책으로 되어 있다. 본문에 수록한 교육학의 여섯 부분은 '①교육철학 및 교육사, ②교육사회학 및 평생교육, ③교육심리학 및 교육공학, ④교육과정, ⑤교육평가, ⑥교육행정학'이다. 이는 대학의 교직과목에서 나누어 놓은 편제와도 연계되는 동시에 교육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전공영역별 교육학 용어를 찾아서 이해하는 데 편리성을 더해 준다. 첫 번째 부분인 '교육철학 및 교육사'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교육철학 및 교육사' 영역 용어사전에서 맨 앞에 나오는 내용이 '가치론'이다. 이 가치론은 '가치론(價値論, axiology)'으로 표제어를 제시하고, 그 아래에 "가치론은 좋음과 나쁨, 옳음과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가치 있음과 없음, 목적과 수단의 문제와 관련해 그 근거와 판단기준 및 대상 등을 밝히는 철학적 노력이다. (…) 아울러 교육철학자들은 도덕교육에서 문학작품을 활용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Noddings, 1988: 198)"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가치론에 관한 간략한 용어설명과 더불어 교육철학에서 가치론이 어떤 근거로 사용되고 어떤 주장이 존재하는지, 'Noddings, 1988: 198'처럼 구체적인 학술 근거를 제시하여 내용을 풍부하게 하였다. 그리고 여섯 영역의 각 부분이 끝날 때마다 용어해설의 근거로 활용한 '참고문헌'을 별도로 제시하여, 여섯 영역이 제각기 단독적인 교육학 용어사전처럼 보이도록 하였다. '부록'에는 '찾아보기'를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인명색인'과 '주제색인'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한국에서 교육학 사전은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 수준에서 '교육학 사전', 또는 '교육학 용어사전'은 교육이나 교육학과 연관된 사항을 '가나다'순으로 나열하여 정돈하거나 교육이나 교육학 관련 개념이나 용어에 관해 명제로 정의하는 것처럼 해설하여 정리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알기 쉬운)교육학 용어사전』은 사전사적 가치 측면에서 볼 때, 교육학의 주제를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사회학 및 평생교육, 교육심리학 및 교육공학,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행정학' 등의 여섯 영역으로 분류하여 교육학의 영역에 따른 용어를 해설하는 동시에, 교육학의 학문적 특성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전으로 재편집하였다. 각 영역별로 용어를 해설함과 동시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학술적 근거로 풍부한 참고자료를 제시하여 편집하였다. 이런 점에서 교육학의 영역별 용어를 명료한 설명과 동시에 학술적 편이성을 첨가하여 교육학 전공 분야별 학술사전으로 엮어내었다.

학문적 가치 측면에서, 이 사전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학의 학문영역별 용어 정돈과 해설, 개념에 대한 구체적 학술이론을 동서양의 저명한 학자들의 저술을 통해 분명한 근거를 제시한 점이다. 즉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사회학 및 평생교육, 교육심리학 및 교육공학,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행정학을 교육학의 주요 전공영역이자 분과 학문으로 분류하고, 그 분야에 해당하는 교육학 개념설명과 그것의 최신이론으로 개념 설명을 뒷받침한 교육학 용어 2,000여 개를 엄선하였다. 이는 기존의 교육학 용어를 기초로 표제어를 취사선택하여 구성하되, 최신 교육이론을 반영하여 교육학의 각 영역을 아우르며 광범위한 분야를 빠트리지 않고 수록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전공영역별로 교육학 전문용어를 제시하고, 그것의 쓰임과 이론적 구명, 주요 학자들의 주장에 이르기까지 구체적 근거를 들어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이론으로서의 교육학 용어와 개념의 위상을 밝히는 데 신중한 사전이다.

5) 『교육심리학 용어사전』[11]

『교육심리학 용어사전』은 교육심리학 전문 학술용어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한 사전이다. 그만큼 교육심리학의 언어공동체를 형성한 교육심리학 전문사전에 해당한다. 교육심리학적 가치에 관련된 현상 및 그에 대한 개념 사이의 관계 구명, 설명, 예측, 그리고 통제를 위해, 용어의 통일성과 표준화를 설정

11)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학 용어사전』, 학지사, 2000.

하고, 교육심리학이 학문적으로 질적 승화를 해나가는 데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는 사전이다. 1,500여 개 규모의 표제어를 제시한 '중사전'이다.

한국교육심리학회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매년 교육심리학의 정체성, 현장적용, 그리고 개혁에서의 역할 등 연차학술대회를 진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교육심리학 이론의 다양한 용어나 개념에 대해 학자들마다 다르게 번역하여 사용하고, 때로는 그 개념과 용어들에 관한 의미 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회에서는 교육심리학의 '언어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외국 학문의 소개와 소화 과정에서 오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사전을 기획하였다. 특히, 교육심리학이 학문으로서 이미 성년의 시기에 다다랐지만, 그 정체성에 대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심리학에 대한 개념화와 용어통일이라는 의도적 선택이 요구되었다. 지난 20세기 거의 1세기에 가깝게 교육심리학은 심리학과 교육학의 중간에 위치하여 두 학문의 중재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교육심리학자들은 심리학의 다양한 이론을 교육 현상에 응용하는 교육심리학적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교육심리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근거로 하여 학문 성격을 구명하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교육심리학 용어사전을 심각하게 요청하게 되었다.

이 사전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앞부분은 '겉표지/속표지/편집위원·집필진/서문' 등으로 되어 있고, 본문은 1,500여 용어들을 'ㄱ-ㅎ' 순으로 분류하여 배열하고 있으며, 뒷부분은 '찾아보기'와 '판권'으로 구성하였는데, 전체 1책으로 되어 있다. 전체 내용에 수록된 개념이나 용어는 21세기 들어서면서 교육심리학도들이 갖는 주요 관심영역으로 '학습과 교수, 지각, 사회행동, 인간발달, 개인차, 상담, 그리고 측정, 통계' 등이다. 내용구성에서는 기존의 백과사전과 같은 접근방법을 지양하되, 외국에서 새로 도입된 교육심리학 용어는 한국적 의미를 살려 번역하였고, 이미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그 뜻을 분명히 한다는 의도에서 다시 정의하고 정돈하였다. '흥미검사'라는 표제어의 경우, '흥미검사(興味檢査: interest inventory)'라는 모습으로 한자와 영어를 동시에 제시하고, 그다음에 "개인의 흥미를 조사하기 위

한 검사이다. 주로 설문(목록) 형태로 만들어진다. 주로 학습흥미검사와 직업흥미검사로 나뉜다. 국내에 학습흥미검사는 다수 있으나 직업흥미검사는 아직 소수이다. 넓은 의미의 태도검사에 포함된다."로 간략하게 해설하여, 간단명료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부록'에는 '찾아보기'를 수록하였는데, 영어 원문을 그대로 드러내어 알파벳 순서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찾아보기'의 맨 처음에 제시한 용어는 'A type behavior pattern'이고 맨 마지막 개념은 'zone of proximal development'이다.

사전사적 가치 측면에서, 『교육심리학 용어사전』은 한국교육심리학회의 전공학자들이 다양한 논의를 거쳐 펴낸, 교육심리학에 관한 집단적 사고와 학술활동의 결실이다. 무엇보다도 교육심리학 전공자들이 교육심리학 언어공동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교육심리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기초가 된다. 기존의 사전은 『교육학 용어사전』이라는 차원에서 교육학의 일반적 용어들을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하여 정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사전은 『교육심리학 용어사전』이라는 전문영역을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어 학문의 전문성은 물론 학문의 정체성과 표준화 작업도 아우르고 있다. 특히, 교육심리학 영역에서 학자들 사이에 서로 다르게 번역하여 이해한 용어를 전공자들의 토론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였고, 개념정의를 간명하게 만들어 의미전달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이는 교육심리학의 질적 도약과 새로운 학문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학문적 가치 측면에서, 이 사전은 1996년부터 매년 진행된 연차학술대회에서 논의한 교육심리학의 정체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 교육개혁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한 학술활동의 성과물이다. 하나의 자율적 학문이 나름의 고유한 개념과 체제, 방법론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서, 교육심리학의 개념과 방법을 찾아나간 집단적 사고와 학술활동의 결과이다. 즉 이 사전을 편찬하여 교육심리학이라는 학문의 정체성을 확보함으로써 교육심리학적 가치를 실현하고, 그 학문적 가치가 교육심리학적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한 지평을 열어 주었다. 무엇보다도 심리학과 교육학의 중간지대에서 두 학문 사이의 중재 역할을 충실히 해 온 학술활동을 바탕으로, 교육심리학의 정체성과

적용을 논의하는 학문의 마당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21세기적 시대정신을 담은 사전이다.

6) 『교육공학 용어사전』[12]

『교육공학 용어사전』은 교육방법의 성숙과 분과 학문이 발달하면서 이룩한 '한국 최초'의 교육공학 분야 전문 학술사전이다. 이 사전은 교육공학 연구자, 대학원생 및 학부생, 실무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교육공학 분야의 주요 용어와 개념을 소개하고, 이론적 배경과 연구동향을 기술하였다. 교육공학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집중적으로 풀이하여 설명하는 동시에, 외국에서 들어온 용어를 최대한 한글로 바꾸어 용어의 통일성과 표준화를 도모하였다. 그만큼 교육공학이 학문적으로 질적 승화를 해나가는 데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는 사전으로, 표제어 1,000여 개 규모의 '중사전'이다.

이 사전을 편찬한 동기는 한국교육공학회가 창립된 지 20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통일된 교육공학 용어사전을 편찬하지 못했다는 반성에 기인한다. 즉 교육공학 분야에서 학술활동 및 학술적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교육공학자 및 대학원생, 그리고 현장에서 교육공학을 적용하는 교육학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의 용어사전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교육공학 용어사전』을 처음으로 편찬함으로써 교육공학의 학문 발전과 학문 후속세대가 교육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다른 교육학 사전과 달리 변화의 폭이 빠르고 넓은 교육공학의 학문적 특성에 따라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적용하여, 교육공학회의 웹사이트 활용 및 용어사전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보완하도록 기획하였다.

이 사전은 무엇보다도 교육공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해설서 형태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용어의 비중에 따라 분량 및 구성을 차별화하였다. 특히, 학교나 기업 등 교육공학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집중적으로 풀이하고, 외래용어를 최대한 한글화 하도록 노력하였다. 사전의 구성은 크

12) 한국교육공학회, 『교육공학 용어사전』, 교육과학사, 2005.

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앞부분은 '겉표지/속표지/편집위원・집필진/서문' 등으로 되어 있고, 본문은 1,500여 용어들을 'ㄱ-ㅎ' 순으로 분류하여 배열하고 있으며, 뒷부분은 '찾아보기'와 '판권'으로 구성하였는데, 전체 1책으로 되어 있다. 내용구성에서는 교육공학 관련 전문서적, 학술논문, 학위논문, 현장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편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였다. 크게는 ①교육공학 일반, ②교수학습이론, ③교수설계, ④ 교수법, ⑤컴퓨터, ⑥교육매체, ⑦기업교육, ⑧수행공학의 대분류로 구분하였다. 이 용어사전은 각 용어의 비중에 따라 '대/중/소'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량을 달리하였다. '대' 용어의 경우, '정의, 주요 내용, 최근 연구동향, 참고문헌' 순서로 기술하였고, 약 4,000-6,000자 분량이다. '중' 용어의 경우, 소제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기술하였고, 약 1,500-2,000자 정도의 분량이다. '소' 용어의 경우, 각 용어를 약 500-600자 수준으로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모든 용어에는 참고문헌과 웹사이트를 포함한 참고자료를 제시하였다.

사전사적 가치 측면에서, 이 사전은 한국교육공학회의 전공학자들이 다양한 논의를 거쳐 펴낸, 체계적인 교육공학 용어 정의에 대한 학술활동의 결실이다. 무엇보다도 교육공학자들이 동료 교육공학 전공학자, 대학원생 및 현장 실무자 등을 위해, 교육공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표준화를 확보하는 데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편찬의 의미가 크다. 이 사전은 국내 최초의 교육공학에 대한 체계적 용어사전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외래용어가 많은 교육공학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최대한 한글화 하려는 점에서도 의미가 상당하다. 특히, 교육공학 분야에서 학자들 사이에 합의되지 않은 개념 및 용어, 외래어의 오번역 등에 대해, 전공학자 사이에 토론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였다. 나아가 개념정의를 간명하게 만들어 의미전달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이는 교육공학의 질적 도약과 후속세대를 위한 새로운 학문적 기초를 마련하는 기틀로 작용하는 데 기여였다.

학문적 가치 측면에서, 이 사전은 한국교육공학회의 연차 학술대회와 교육공학 전공학자 개인들의 학술적 연구물을 종합 정리하여, 교육공학의 정체성, 새로운 추세의 반영, 현장 적용 및 역할 등을 집대성한 학술활동의 결과

물이다. 교육학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핵심 분과학문으로서 교육공학이 나름의 고유한 개념과 체제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서 탄생한 성과이다. 즉 이 용어사전은 교육공학이라는 학문의 정체성을 확보함으로써 교육공학의 가치를 실현하고, 더욱 활발하게 현장에 적용하여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7) 『유아교육사전』[13]

『유아교육사전』은 유아교육 분야의 전문 학술용어를 중심으로 유아교육 전공학자 및 대학생, 대학원생, 유아교육 현장 실무자를 주요 대상으로 편찬하였다. 유아교육 분야의 주요 용어와 개념을 소개하고, 이론적 배경과 연구동향을 기술하였다. 아울러 유아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체계적으로 해설하고, 용어를 통일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 사전은 우리나라 유아교육 분야가 교육학의 주요 분과학문으로 도약하는 데 밑거름이 되는 사전으로, 표제어 1,000여 개 규모의 '중사전'이다.

이 사전을 편찬하게 된 경위는 한국유아교육학회 창립 21주년의 기념사업을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한국의 유치원 및 유치원 양성기관의 역사는 100년에 육박한다. 하지만 실천적 특성과 연구영역의 다양성으로 유아교육이 독자적 학문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불과 40여 년 전의 일이다. 즉 1975년 한국유아교육학회의 창립을 통해 학문적 발전을 위한 본격적 학술활동을 시작하였다. 사전이 처음으로 편찬되던 시점인 199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본다면, 유아교육은 20여 년의 학문성과를 축적하면서 유아교육 전문영역과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용어들을 표준화하고 정리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사전 편찬 작업의 양이 방대하여 지연되다가 한국유아교육학회 창립 20주년을 계기로 용어사전 편찬 작업을 시작하였다.

유아교육은 말 그대로 교육학의 분과학문으로서 유아를 중심으로 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유아교육사전』은 유아교육 및 유아교육 측정 분야의 전공

13) 한국유아교육학회, 『유아교육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6.

연구자, 대학생, 대학원생, 유아교육 관련 기관 실무자를 주요 대상으로 편찬된 용어사전이다. 내용은 주로 유아교육 분야의 용어에 대한 해설서 형태로 구성되었는데, 용어의 중요도에 따라 내용의 분량을 조절하였다. 내용 선정은 유아교육의 전반적 영역에 걸쳐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자주 언급되는 개념을 선택하였다. 또한 유아교육과 인접해 있는 학문 분야의 주요 용어도 함께 수록하였다. 용어의 설명은 개념을 간략하게 정의한 후, 보충설명을 통해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같은 표제의 하위 개념이 크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1), (2)' 등으로 순서를 매기며 기술하였고, 세부 항목은 '①, ②, ③' 등으로 번호를 붙여 설명을 추가하였다.

사전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앞부분은 '겉표지/속표지/편집위원·집필진/서문' 등으로 되어 있고, 본문은 1,500여 용어들을 'ㄱ-ㅎ' 순으로 분류하여 배열하고 있다. 그리고 뒷부분은 '찾아보기'와 '영문색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1책으로 되어 있다. 용어를 설명한 후에는 관련 용어에 대한 풀이를 추가하기 위해 '화살표(→)'를 활용하여 연계되는 용어를 제시하였다. 단어와 어구의 강조와 인용을 위해 일관성 있게 '「 」' 표시를 활용하였고, 저서를 인용한 경우에는 '≪ ≫'로 표기하였다. 저서의 경우, 한글로 번역한 명칭을 제시한 후, '( )' 안에 원어와 출판 연도를 표기하였다. 외래어와 외국어의 한글 표기는 원어의 발음에 충실하되, 괄호 속에 원어와 출판 연도를 표기하였다. '표제어' 및 '외국어 찾아보기'를 실어 외국어의 우리말 표기에 대한 '표준 번역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전사적 가치 측면에서, 『유아교육사전』은 한국유아교육학회의 전공학자들이 다양한 논의를 거쳐 펴낸 결과물로, 체계적으로 유아교육의 용어를 정의한 사전이다. 유아교육의 전문영역과 유아교육의 현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용어나 개념을 표준화하고 정리할 필요성에 부응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유아교육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문 후속세대인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그리고 유아교육을 실천하는 실무자는 물론 인접학문 분야의 교육 전문가들의 원활한 교육 및 학문활동과 의사소통을 위해 편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아교육에 관한 단순한 용어나 개념의 해설뿐만 아니

라, 주요 용어에 대한 내적 기능을 기술함으로 일반 실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학문적 가치 측면에서 볼 때, 이 사전은 한국유아교육학회 창립 21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만큼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 연구자들의 학술적 연구물을 종합 정리하여, 집대성한 집단지성의 활동성과이다. 교육학의 여러 분과학문 가운데 상대적으로 실천적 성격을 지닌 유아교육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다양성은 다른 교육 분야의 학문보다 광범위하다. 이 때문에 용어사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매우 크고, 그 파급 효과 또한 엄청나다. 따라서 『유아교육사전』의 편찬은 유아교육이라는 학문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유아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에서 적용과 응용의 차원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였다.

8) 『특수교육학 용어사전』[14]

『특수교육학 용어사전』은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 학술용어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전공 연구자, 대학생 및 대학원생, 특수교육 분야 종사 실무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이 때문에 특수교육 분야의 주요 용어와 개념을 소개하고, 이론적 배경과 연구동향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런 만큼 특수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집중적으로 풀이하고, 한자어와 외국에서 들어온 용어를 최대한 한글로 바꾸어 용어의 통일성과 표준화를 도모하였다. 이 때문에 교육학 가운데 어떤 분야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특수교육을 학문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것으로 1,000여 개 규모의 표제어를 제시한 '중사전'이다.

용어나 개념 사전은 학문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작업이다. 마찬가지로 『특수교육학 용어사전』은 빠르게 변화하는 특수교육학계와 현장의 학술적 의사소통 차원에서 다양한 요구가 있어 왔다. 즉 의사전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특수교육학자나 전공 연구자 및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현

14)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도서출판 하우, 2009.

장에서 특수교육을 적용하는 교육학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이 용어사전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국립특수교육원은『특수교육학 용어사전』의 편찬을 핵심과제로써 내걸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발간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탄생한 이 사전은 특수교육학의 학문적 발전과 학문 후속세대의 교육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전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앞부분은 '겉표지/속표지/편집위원・집필진/서문' 등으로 되어 있고, 본문은 1,500여 항목에 이르는 용어들을 '가나다'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영문용어의 경우에는 알파벳 순서가 아닌 '용어의 발음'을 한글 자모의 순서에 따라 제시하였다. 사전의 내용을 구성할 때, 사전 편찬을 계획한 기획위원들은 2000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 특수교육 관련 저서와 논문, 번역서를 중심으로 1차적으로 용어를 선별하였다. 그리고 이후, 편집위원들의 신중한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록할 용어를 선정하였다. 용어는 한글, 한문, 영문으로 표기하였으며, 동의어의 경우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한자의 사용은 가능한 지양하였으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병기를 허용하기도 했다. 한자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자용어에 대한 뜻을 자세히 풀이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자어의 경우에도 한글과 동일한 방식으로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외래어의 경우에도 한글 표기방법으로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관련 용어와 동의어는 독자들이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별도로 표시하였다. 또한 '법률'과 연관되는 용어나 명칭의 경우에는 '「 」' 안에 구별되도록 표기하였고, 한국 이외의 법률은 국가명을 표기하였다. 용어와 동의어 및 본문 내용에 참고할 만한 용어는 사전 뒷부분의 '찾아보기'에 실었다. 용어가 여러 곳에 나오는 경우에는 해당 쪽수에 별도로 표시하여 쉽게 찾아보도록 하였다.

사전사적 가치 측면에서,『특수교육학 용어사전』은 국립특수교육원의 핵심 과제로 기획되어 3년 동안 수행할 정도로 큰 의미가 부여되었다. 사전 발간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게 설정하여 진행한 것이다. 이 사전은 외래어 용어가 많은 특수교육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최대한 그 의미와 용법을 명료화하는 작업에 주력하였다. 이는 특수교육학의 질적 도약과 후속세대를

위한 새로운 학문적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학문적 가치 측면에서 볼 때, 『특수교육학 용어사전』은 특수교육학이 교육학 영역에서 주요하게 자리매김되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이제는 특수교육학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교육학 분과학문 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표준화하고 명료화하는 작업을 더해 나가야 한다. 특수교육학의 주요 용어는 관련 연구의 기본 도구이자 학문적 사고의 기준으로 기능하며, 특수교육의 학문적 지식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담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약 3년에 거쳐 특수교육학 전공학자들의 노고로 용어사전이 탄생했다는 것은 특수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고, 더욱 활발하게 현장에 적용하여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학문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촉매 기능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9) 『교육평가 용어사전』[15]

『교육평가 용어사전』은 교육평가 분야의 전문 학술용어를 중심으로 '교육평가·측정·통계' 전공학자, 대학생 및 대학원생, 현장의 평가 관련 실무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이 사전에서는 교육평가 분야의 주요 용어와 개념을 소개하고, 이론적 배경과 연구동향을 기술하였다. 따라서 교육평가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집중적으로 해설하고, 용어의 통일과 표준화 기준을 설정하여, 교육평가가 학문적으로 질적 승화를 해나가는 데 새로운 지평을 여는 초석이 되는 사전이다. 표제어가 1,000여 개 정도 되는 규모의 '중사전'이다.

교육평가는 교육은 물론이고 다양한 분야의 인접학문과 연계성이 높은 분야이다. 그만큼 이론 체계가 다양한 영역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고, 교육평가의 경우에는 교육의 변화와 평가방식의 전환에 따라 활발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개념과 이론이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평가 및 측정을 전공하는 학자나 대학생 및 대학원생, 교육현장의 실무자들은 그동안 교육평가에 임하면서 통일되지 않은 용어에 대한 혼란과 불편함을 느껴왔다.

15) 한국교육평가학회, 『교육평가 용어사전』, 학지사, 2004.

나아가 교육평가 및 관련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에서 『교육평가 용어사전』의 편찬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한국교육평가학회는 학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용어사전 편찬 작업을 진행하였다.

교육평가 및 측정영역은 그동안 광범위한 형태로 교육 분야에 적용되어 왔으나 학술용어의 통일성을 이루지 못해 학술활동 및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이 사전은 교육평가 및 측정을 전공하는 학자, 연구자, 그리고 현장에서 교육평가를 적용하는 교육학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의 요구를 반영하였다. 따라서 『교육평가 용어사전』은 용어나 개념의 명확한 풀이와 통일성을 통해 분과 학문 발전과 학문 후속세대의 교육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이 사전은 '교육평가'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개념에 관한 해설서 형태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용어의 비중이나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수록의 분량을 조절하였다. 용어나 개념정의는 교육학적 관점에서 서술하였고,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기존의 번역을 존중하되, 최근 사용하고 있는 용어나 개념에 대한 올바른 번역과 해설에 초점을 두었다. 이 사전에는 평가나 측정의 공정성과 엄격성만큼이나 구체적인 작성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각 용어는 '용어→정의→설명→예시'의 순으로 구성한다. 둘째, '영문용어'의 경우, 번역이 다수의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되어 동의어가 있는 경우, 용어설명의 맨 뒤에 '[동의어]'를 표기한다. 또한 '참조'의 경우에는 '[참조]' 표기를 통해, 한글용어를 명기한다. '영문약자' 및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영문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약어'의 의미를 풀어서 표기한다.

『교육평가 용어사전』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앞부분은 '겉표지/속표지/편집위원·집필진/서문' 등으로 되어 있고, 본문은 1,500여 항목의 용어를 'ㄱ-ㅎ' 순으로 분류하여 배열하고 있으며, 뒷부분은 '찾아보기'와 '영문 색인'을 포함하고 있고, 전체 1책으로 되어 있다. 내용 구성에서는 '측정, 평가, 연구방법론, 통계' 등 네 분야의 전공영역을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각 용어의 마지막 부분에는 거기에 제시된 집필자 코드 번호를 통해, 전공영역과 집필자를 실명으로 제시하였다.

사전사적 가치의 측면에서, 『교육평가 용어사전』은 한국교육평가학회의

전공학자들이 다양한 논의를 거쳐 펴낸 성과로 체계적인 교육평가 용어와 개념정의에 대한 학술활동의 결실이다. 한국교육평가학회는 1994년 한국교육학회 교육평가연구회 시절에 『교육측정·평가·연구·통계 용어사전』을 편찬하였는데, 그 후, 급격하게 발전한 평가 분야의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과 관련한 용어를 체계화하여 전문용어 사전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 사전의 발간은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이 용어사전의 대상은 교육평가 분야의 전문가 뿐만 아니라, 후속 학문세대인 대학원생, 그리고 각종 교육현장에서 평가 및 측정, 통계를 적용하고 있는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원활한 학문활동과 의사소통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단순한 용어의 개념 설명은 물론 주요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풀이는 일반 실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제시되었다.

학문적 가치의 측면에서, 이 사전은 한국교육평가학회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교육평가학회의 연차 학술대회와 교육평가 분야의 개인 연구자들의 학술적 연구물을 종합 정리하여, 집대성한 학술활동의 결과물이다. 교육평가는 교육심리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심리측정 이론 및 통계적 방법 논리의 발달에 영향을 받고, 교육과정 및 교수이론과 연계되어 교육학 분과학문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고 있다. 교육평가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개념의 다양성은 교육학 분과학문의 여러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광범위하다. 그러므로 용어사전의 필요성과 중요성 측면에서 의미가 가중되고, 용어사전의 유용성 또한 매우 높다. 이런 점에서 『교육평가 용어사전』의 편찬 작업은 교육평가라는 학문의 정체성을 확보함으로써 교육평가의 가치를 실현하고, 현장에 적용하여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4. 맺음말

이상과 같이 교육학 분야에서 편찬한 주요 사전을 간략하게 검토해 보았다. 교육학 분야의 사전은 교육학의 발달과 함께 진일보해 왔다. 1960년대 이전, 아직 교육학이 성숙하지 않은 시기나 사전 편찬에 대한 요구가 터져

나오던 1970년대 무렵에는, 대체로 일제 강점기에 사용하던 일본 사전이나 영미 계통에서 발간한 사전을 참고하여 번역해 놓은 수준이었지만, 전공학자들의 성장과 더불어 점차적으로 수준 높은 사전을 발간해 오고 있다.

성숙도를 높여가고 있는 교육학 영역에서 편찬한 사전은 크게 두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교육학 용어사전』과 같이 교육학의 전 영역을 포괄한 사전이다. 이는 교육학 용어와 개념을 종합적으로 정돈한 대사전 형식을 띤다. 다른 하나는 『교육심리학 용어사전』이나 『특수교육학 용어사전』처럼 교육학의 분과학문을 전공영역별로 정돈한 사전으로 중사전 형식이다. 본고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서 새로운 교육학의 등장과 더불어 다양한 내용의 사전이 발간되었다. 예를 들면,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의 『다문화교육 용어사전』이나 한국영재학회의 『영재교육학 용어사전』 같은 것들이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학자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정돈한 사전이나 '교사용' 또는 '수험용' 교육학 사전과 같은 특수 목적을 지닌 사전도 다양하게 편찬되고 있다. 이런 작업은 모두 학문의 발달과 사회발전, 교육진보에 따른 결과이다.

교육학 관련 분과학문의 경우, 대개 20여 년 정도의 학문이 축적되면서 전문개념이나 용어사전을 발간하기 시작하였고, 당대 전공학자 대부분이 참여한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교육심리학 용어사전』의 경우, 한국교육심리학회 차원에서 교육심리학 전문 학술용어를 중심으로 정돈하였는데, 무려 4여 년에 걸친 연차학술대회의 결과물이다. 또한 『특수교육학 용어사전』은 국립특수교육원의 핵심과제로 3여 년의 사전 발간사업을 추진하여 나온 성과물이다. 『유아교육사전』은 한국유아교육학회 창립 21주년 기념사업으로 유아교육 분야의 전문 학술용어를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교육공학 용어사전』의 경우에는 한국교육공학회 창립 20년에 즈음하여 교육공학 전공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을 최초로 발간하기에 이른다. 『교육평가 용어사전』의 경우에도 한국교육평가학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교육평가 분야의 전문 학술용어를 중심으로 편찬하였다.

이런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편찬한 사전 집필 작업은, 교육학의 분과학문

영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볼 때, 10년 또는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다. 과거에 편찬한 사전은 현재에도 여전히 학문의 토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대변화나 학문진보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만큼, 과거와 현재 사이에는 학문적 차이가 존재한다. 물론 교육학 영역의 분과학문의 추이나 여러 사안에 따라 현재도 지속적으로 증보판 사전 편찬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전은 학문성과 현실성, 실용성을 지녀야 한다. 지식 정보화, 학문의 발전추세, 용어통일과 표준화, 북한 교육학과의 통일성 등 시대정신에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교육학 분야의 사전 편찬도 디지털 시대의 기술 문명을 활용하는 동시에 철학적 차원과 과학적 측면을 아울러 갖춘, 엄정한 사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질적 승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教育相談事典』, 金子書房, 1966.
『教育心理學事典』, 金子書房, 1970.
『브리태니카백과사전(Compton's Encyclopedia)』, Division of Encyclopedia Britannica, 1970.
『세계백과사전(The World Book Encyclopedia)』, Field Enterprises Educational Corporation, 197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어대사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1999.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한국한자어사전』,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96.
㈜ 오픈 마인드, 『디지털 한자사전 e-한자』.

강명희 외,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3판)』, 교육과학사, 2017.
고대영, 「남북 통일 사전 편찬 사업의 방향과 전망—"겨레말큰사전"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제50집, 반교어문학회, 2018, 97-119면.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알기 쉬운 교육학 용어사전』, 도서출판 원미사, 2007.
교육대사전편찬위원회, 『활용 교육대사전』, 신진출판사, 1972.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도서출판 하우, 2018.
권순우 외, 『특수교육학개론: 예비(특수)교사를 위한 알기 쉬운 통합교육의 실천』, 창지사, 2017.
권희영 외, 「상담학사전 편찬 연구Ⅱ—거시구조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제13권 6호, 한국상담학회, 2012, 2943-2964면.
김영미 외, 『특수교육 교육과정 재구성』, 교육과학사, 2018.
김춘경 외, 「상담학사전 편찬 연구Ⅰ—미시구조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제13권 2호, 한국상담학회, 2012, 799-818면.
김혜령, 「디지털 시대의 사전 편찬—〈우리말샘〉의 집필 참여 시스템을 중심으로」, 어문연구학회 2016년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2016년 11월 25일.
남기심・이희자, 「새로운 사전 편찬의 개념과 그 실제—『연세 한국어 사전』을 중심으로」, 『사전편찬학연구』 제8집 1호, 연세대 언어정보개발원, 1997, 33-66면.
남길임, 「사전편찬학연구사—국어사전 편찬의 30년, 사전 편찬 방법론을 중심으로—」, 제21회 한말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2005년 1월 15일.
남억우 외, 『최신 교육학대사전』, 교육과학사, 1990.
대한특수교육학회, 『특수교육용어사전』, 대구대 출판부, 2000.
도원영・신상현・최경봉, 「사전 편찬 정보 통합 DB구축 방안 연구」, 『민족문화연구』 제75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7, 17-37면.
모순영, 「김정은시대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의 과제와 전망」, 2018 북한연구학회 추계학술회의 자료집, 2018년 10월 12일.
박준희, 『교육학개론』, 박영사, 1984.
박준희 외, 『교육학대사전』, 교육과학사, 1972.
백순근, 『교육측정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2007.
서명원, 『교육학사전』, 대한교육연합회, 1965.

서울대 교육연구소,『교육학 용어사전』, 도서출판 하우, 1994.
서울대 사범대학 교육연구소,『교육학 용어사전』, 배영사, 1981.
성태제,『교육연구방법의 이해』, 학지사, 2016.
신창호,『민주적 삶을 위한 교육철학—존 듀이의 일상 교육 구상』, 우물이있는집, 2016.
_____,『존 듀이 교육학의 원류를 찾아서—나의 교육 신조 독해』, 우물이있는집, 2018.
양돈규,『심리학 사전』, 박영사, 2017.
유구종,『교육통계와 SPSS』, 창지사, 2011.
兪鉉兼,『簡明教育學』, 皇城: 右文舘, 1908(隆熙二年).
尹泰榮,『師範教育學』, 京城: 普成舘, 1907(光武十一年).
이기숙,『유아교육개론』, 양서원, 2012.
이상섭,「현대 사전편찬학 이론과 실제」,『언어사실과 관점』제3집,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1990, 77-117면.
이태영,「디지털 시대의 사전 편찬의 방향」,『국어문학』제69집, 국어문학회, 2018, 41-67면.
이화여대 교육공학과,『21세기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과학사, 2002.
조무남,『교육학론』, 학지사, 2004.
崔光玉,『教育學』, 京城: 普成社, 1907(隆熙元年).
최민수 외,『유아교육개론』, 학지사, 2012.
한국교육심리학회,『교육심리학 용어사전』, 학지사, 2000.
한국교육학회 교육평가연구회,『교육측정·평가·연구·통계 용어사전』, 중앙교육진흥연구소, 1994.
한국유아교육학회,『유아교육백서: 1995년-2000년』, 양서원, 2003.
황정규 외,『교육평가의 이해』, 학지사, 2016.
David A. Statt, 정태연 옮김,『심리학용어사전』, 끌리오, 1999.
Julie Davis and Sue Elliott, 지옥정 외 역,『지속가능성을 위한 유아교육 연구: 영유아와 가족 지원』, 창지사, 2015.

Anglin, G. A.(Ed.), *Instructional Technology: Past, Present, and Future*(2nd ed.), Englewood, CO: Libraires Unlimited, 1991.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The Definition of Educational Technology*, Bloomington, IN: AECT publication, 2004.
Januszewski, A. and Molenda, M.(Eds), *Educational Technology: a Definition with Commentary*,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8.
Jonassen, D. H.(Ed.), *Handbook of Research on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2nd 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4.

【Abstract】

A Study on Compilation of Dictionaries of Education in Korea —Focusing on the Compilation of Major Dictionaries Since 1970s—

Shin, Chang-Ho*

This study overviews the status and contents of compilation of dictionaries of education in Korea. Education as an academic field had flourished ever since the introduction of Western educational thoughts prior to the 1945 national liberation. In 2000s a team of education scholars worked together to compile dictionaries of education, which led to Grand Dictionary of Education, covering education in general, to more specialized dictionaries, such as Lexicography of Special Education, each covering disctinct subfield of education. The latter ones both overlap and differ in content. The length of the dictionaries ranges from 400 pages to 1,700 pages; the number of entries from 750 to 10,000, with 1,000 entries for the dictionaries of the latter kind. Should a new edition be made, the progress in the field of education since the publication of the first edition must be included with the help of scholars of each subfield for specialized contents. In addition, terms and concepts need to be standardized in a way that reflects Zeitieist; both the local and global aspects of education in Korea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dictionaries of education need to be aligned with their counterparts in North Korea for consistency in case of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Keywords: dictionary, education, education as an academic field, dictionary of education, dictionary of educational psychology, dictionary of educational technology, dictionar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ictionary of special education, dictionary of educational evalution.

접수일: 2019.09.29. ‖ 심사일: 2019.10.08. ‖ 게재확정일: 2019.11.01.

* Professor, Dept. of Education, Korea Univ.